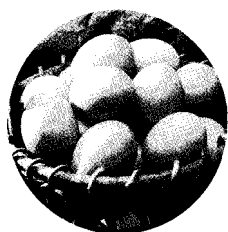


등급정보 (계란) *



▷ 22개 업체에서 생산한 3천1백65만7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 84.7%, 1등급 11.8%, 2등급 1.6%, 3등급은 1.9%를 차지, 전월대비 5백50만8천개(14.8%) 감소, 전년동기(21개 업체, 2천9백28만6천개)대비 2천37만1천개(8.1%) 증가, 근월누계는 2억3천6만1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4천1백64만6천개(22.1%)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종량 규격	개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9년 1~7월	230,061	192,597	83.7	31,457	13.7	1,335	0.6	4,672	2.0
'09년 6월	37,165	29,531	79.5	6,492	17.5	232	0.6	910	2.4
'09년 7월	31,657	26,818	84.7	3,731	11.8	507	1.6	602	1.9
왕란	173	149	86.1	24	13.9	-	-	-	-
특란	22,374	19,087	85.3	3,120	13.9	124	0.6	43	0.2
대란	9,070	7,552	83.3	577	6.4	383	4.2	559	6.2
중란	40	30	75.0	10	25.0	-	-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한·EU FTA 계란, 닭고기 산업 타격 불가피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계란산업의 경우 적지 않은 산업기반 확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회는 계란시장규모가 1조2천억원으로, 국민소비량도 연간 200개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외국(EU)계란이 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EU FTA 발효시 가공육위주의 제품 관세가 인하되거나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계란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동물복지와 친환경 사육조건 등을 앞세운 유럽산 난가공품이 들어올 경우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계란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 수입닭고기 시장에서 EU(덴마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닭다리 46%, 냉동닭 날개 94.8%에 달해, 최근 유통화 강세와 미국산의 약진 등으로 인해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부위에서는 미국이나 태국산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EU FTA 타결에 따른 관세장벽 제거 시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면서 수입품에 국내 시장을 내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이에 따라 양계산업의 피해보상 대책 등이 먼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한·EU FTA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종란가격 현실화 시급, 농가 결단 필요

종란가격 현실화를 위해 농가들이 납품거부 등 농가 결단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경기도 평택소재 가보호호텔에서 열린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최성갑 위원장은 "종계농가 중 80% 이상은 계열업체에 종란을 납품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란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모자란 수준이다"며 농가 스스로 납품가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계열사와 개인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 결국 농가들이 해야하는 일이다. 종란납품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생존권을 위해 농가들이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종계없이 육계사육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계농가에 대해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실정기에 협회와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축산뉴스)